

# 전북대,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 선정

### 전국 첫 '에너지-AI 융합공학과' 설립, 5년간 61억원 투자 100여명 인력 양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020년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사업단장 양오봉 교수·사진)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전국 최초로 대학원에 에너지-AI 융합 인력을 양성하는 태양에너지-AI 융합공학과를 설립한다. 산업부로부터 5년간 61억원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AI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창의적 석·박사 융합인력을 5년간 100여명 배출하게 된다.

그 동안 전북대는 김동원 총장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는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분야의 주요 성과물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전북대는 올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



다.

이번에 전북대가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을 따낸 것은 서울대, KAIST, 성균관대, UNIST 등 12개 대학들과 경쟁해 이뤄낸 그 의미가 있다.

전북대 에너지-AI 융합대학원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첨단이며, 독창적인 전문대학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에너지융합대학원은 시 기반 에너지융합기술 프로젝트, 인턴십, 및 세미나 등의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창의적 융합인력 배출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태양전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전지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한화솔루션, LG전자, 신성에너지 등 10여개 국내최고의 기업들이 전북대-고려대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계에 도달한 태양전지 기술에 첨단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 대학원 태양에너지-AI 융합공학과에는 화학공학부(양오봉·이수형·한지훈·김민 교수), 국제이공학부(노원영·이승범 교수), 전자공학부(정길도·조성익·이종열 교수), 컴퓨터공학부(이준환·오일석·이말레·윤수경 교수),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M. Shateer Akhtar 교수)와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김동환·이해석·전용성·강윤목 교수)에서 국내최고의 태양전지와 AI(인공지능)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대-고려대 에너지융합대학원은 인공지능 기반 태양전지 소재 및 소자 개발 IoT/AI 기반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반 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을 선도할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로 처음 모집한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에 고려대와 한 팀을 이뤄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도 선정돼 2개의 에너지융합대학원이 출범한다.

태양전지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한화솔루션, LG전자, 신성에너지 등 10여개 국내최고의 기업들이 전북대-고려대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계에 도달한 태양전지 기술에 첨단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태양전지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한화솔루션, LG전자, 신성에너지 등 10여개 국내최고의 기업들이 전북대-고려대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계에 도달한 태양전지 기술에 첨단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조광수)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2차 실전창업형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예비창업자 역량 강화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조광수)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2차 실전창업형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사업단은 오는 9월까지 1년 미만의 초기 및 예비창업자 16팀을 대상으로 IP창업 기초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그룹 멘토링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실전창업형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은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과 전북지식재산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특히 관련 지

식과 역량 또한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광수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의 노력마저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확실한 방역 속에서 초기 및 예비창업자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습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은 프로그램 중 진행되는 발표대회를 거쳐 우수한 3팀을 선정, 최대 500만원 상당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학생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동참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학생들이 사랑과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간호학부 동아리 N.C.F.(Nursing Christian Fellowship) 소속 한다연, 김다비 등 6명이다.

한다연 학생은 "N.C.F. 소속 학생들은 항상 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함께하는 나눔의 사회봉사'를 실천해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절반으로 떨어져 혈액수급의 어려움이 있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희 학부장은 "코로나19로 부족해진 혈액 수급난 해소와 헌혈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실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러경제우호협력추진단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진한 1,200만원 상당의 이동형 투명 가림막 제품 600개를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대표 조준호)에 기부했다.

### 한러경제우호협력추진단, 장애인단체에 투명 가림막 기부

#### 원광대 강경숙 교수 가교 역할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중등특수교육과 강경숙 교수가 한러경제우호협력추진단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진한 1,200만원 상당의 이동형 투명 가림막 제품 600개의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기부에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한러경제우호협력추진단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 문

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족을 준비 중인 민간 주도 협의체다.

지난달 29일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대표 조준호)에 전달된 이번 투명 가림막 기부는 협의체 실무 추진을 지원하는 (주)테라컨설팅그룹(대표 김현석)과 (주)아르(대표 안제니)이 강경숙 교수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서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는 호소를 접하게 되면서 성사됐다.

강경숙 교수는 "취약 계층에 있는 다수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주변 환경위생 및 개인위생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 사실이다"며 "이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기관들 또한 열악한 재정으로 최소한의 방호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는 호소를 접하게 되면서 성사됐다.

강경숙 교수는 "취약 계층에 있는 다수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주변 환경위생 및 개인위생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 사실이다"며 "이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기관들 또한 열악한 재정으로 최소한의 방호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전북교육청 4개 연수기관 '전북교육연수포털' 통합

#### 운영비 매년 25% 절감 효과

전북교육연수원(원장 김학산)은 올해 1월부터 '전북교육연수포털'로 개편 운영함으로써 도내 교직원 연수시스템 운영비를 매년 약 25%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 산하 4개 연수기관(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연수를 관리해 교직원들은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연수를 신청하고 수강하는 불편이 있었다.

교육연수원은 이러한 불편 해소를 효율적인 연수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통합관리방안을 추진해 올해 1월 연수시스템을 개편 공동 운영함으로써 일괄감액, 연수신청 및 사이버연수 수강이 가능하게 됐고 연수생의 편의성과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

또한 4개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합하면서 이와 연계된 통합교육연수시스

템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비용을 적게 부담하게 됨으로써 매년 약 25%(2020년도 기준 당초 8천4백만원, 개선 6천2백만원, 감소 2천2백만원)를 절감하게 됐다.

김학산 원장은 "도내 교육연수기관이 협력해 교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연수 접근성을 높였으며 예산절감도 했다"며 "앞으로도 연수 서비스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역량 제고와 행복한 전북교육 연수문화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